

# 영혼을 더럽힌 과학자들의 양심선언문

리처드 로즈의 《원자폭탄 만들기》

이창건  
원자력위원

《원자폭탄 만들기》(The Making of the Atomic Bomb)는 1986년 말에 나왔는데 이듬해 봄 미국출판중그 책을 선물로 받았다. 그 후 미국 친구가 내용이 좋으니 꼭 읽어 보라며 책상 위에 한 권 놓고 갔고, 다음엔 캐나다의 원자력 전문가가 원자력의 뿌리를 알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라며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책 몇권을 갖게 된 나는 주변 동료들에게 책의 골자를 소개하면서 필독의 우량도서라며 선사했던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내가 사는 마을에선 이 책의 줄거리라도 알아야 대화상대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이 세인의 이목과 흥미를 끄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인데, 한마디로 혼자 읽기엔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다.

## 프로작가의 예리한 통찰

저자 리처드 로즈(Richard Rhodes)는 이 책을 펴내기 위해 앞서 이미 4권의 소설과 2권의 논픽션 작품을 발표한 명성있는 문필가로서 독자들의 취향과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프로작가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이하여 이야기할 줄 아는 프로근성에 투철한 작가이며, 그러면서도 문제의 정곡을 예리하게 찌르고 사건의 중요성을 깊이있게 파헤치는 기자근성을 지닌 저자이기도 하다.

저자는 관련 사진 128매와 그림과 도표까지도 수록했을 만큼 참고자료 수집에 충실하였다. 또 그는 백여명의 등장인물과 주변의 관련자들과 일일이 면담했으며, 만남이 여의치 못할 경우엔 서신으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갔다. 무엇보다 특출한 것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충분한 고증(考證)을 거친 결과 객관성을 지녔다는 점인데, 이때문에 이 책은 역사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는 자료수집과 면담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미국은 물론 유럽 각지의 관련 연구소, 대학, 핵시설 등을 방문하였다. 학계에서는 이런 작업을 조사연구(research)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포드(Ford)재단과 슬론(Alfred P. Sloan)재단이 담당했다.

세계 출판계에선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간

**이 책의 저자는 프로근성에 투철한 작가이다. 문제의 정곡을 예리하게 찌르고 사건의 중요성을 깊이있게 파헤친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충분한 고증을 거친 역사성도 갖췄다. 핵물리 태동기에서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한 이야기에 이르는 수십년간의 과학적 성취와 과학자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국제정세의 변동과 함께 그려내고 있다.**

행된 저서 중 참고자료가 풍부하고 사실에 충실하면서 역사성을 띤 작품으로 윌리엄 웰 쉬어의 《제3제국의 흥망》과 《원자폭탄 만들기》의 두권을 꼽는다. 그만큼 이 책은 서구사회의 독서문화권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어 이 책을 읽지 않고선 근세사와 세계문명 그리고 인류의 양심을 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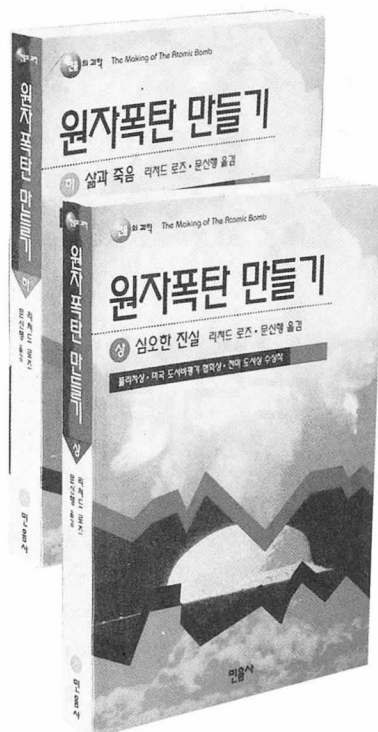
원저는 886쪽의 두꺼운 책인데 788가지의 방대한 참고문헌과 자료를 수록하고 문장 중에 등장하는 376명 인물들의 이야기를 556번 인용하고 있다. 인물과 문헌 및 관계 기관 이름 등을 수록한 색인은 총 96쪽에 이른다. 이 책은 소설형식을 빌린 흥미진진한 학술논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리라 본다.

## 소설형식 빌린 흥미진진한 학술논문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으나 일본에 상륙하면 몇만명의 미국군인과 수십만명의 일본인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므로 원자폭탄 사용으로 희생자수와 시간을 줄이고 경제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때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데 반해, 일본은 자기네와 비밀리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소련과의 뒷거래를 통해 조건부 항복을 흥정하고 있었다. 일본 패망이 확실해지자 스탈린은 그해 8월15일



에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면 소련은 볼로소도로 일본영토의 일부를 점령하여 궁극적으로 전후 동북아에서 패권을 노리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조기에 받아내고 또 스탈린의 흥계를 사전에 차단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는 바로 전쟁중이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또 전후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사전에 공고히 구축하려면 원자탄 투하는 불가피하다. 핵폭발의 가공할 파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목적으로 미군은 일본의 68개 도시를 집중폭격하면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만은 손대지 않았다.

넷째, 원자폭탄 제조를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는 극비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간 투입한 20억불 이상의 비용은 의회의 승인없이 지출한 비밀예산이었다. 전후에 의회와 감사기관의 묵시적인 사후승인을 순조롭게 얻어내려면 아무래도 두서너번의 폭탄투하가 필요하다.

재미있는 일은 리오 질라드, 유진 위그너, 에드워드 텔러 및 존 폰 노이만의 헝가리 4인방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우랄 알타이계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

는 우리에게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북한인이 이것을 읽으면 여기에서 핵폭탄 만들기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결국 히틀러는 유대인을 추방하고 학살했기 때문에 유대인 과학자들을 미국에 집결시켜 원자폭탄을 만드는 계기와 여건을 조성해줬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인간적 고뇌와 국제정세 변동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레비가 이 책을 밀턴의 《실락원》에 비길 만한 서사시라 했고, 또 같은 상의 수상자인 세그레가 소설로서도 훌륭한 작품이며 이 분야의 책 중 최고라고 격찬한 것도 바로 이 책의 지적 수준과 질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들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성적이었던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 영어에선 밤낮으로 일했다를 'day and night'라 하는데, 여기에선 핵전문가들이 'worked night and day'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선 19세기의 핵물리 태동기에서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한 이야기에 이르는 수십년간의 과학적 성취와 이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생활상,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와 국제정세의 변동을 그리고 있다. 히로시마의 비극을 눈여겨본 그들은, 그것이 자기네의 머리와 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음속 깊이 뉘우침으로 변민했으며, 그러다가 그 경지를 뛰어넘어 세상을 재앙에서 구출해내야 한다는 외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한때 대세에 밀려 머리와 손과 마음이 더럽혀졌음을 뒤늦게 자각한 과학자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옮겨온 양심선언문이기도 하다. ❖

문신행 옮김 / 민음사 / A5신 / 각 430면 내외 / 각 10,000원